

작은자공동체

The Least of These Church



일시: 2017 년 3 월 5 일 (주일) 오후 3 시

장소: Judson Memorial Church, Garden Room

모이는 곳: Garden Room, Judson Memorial Church
55 Washington Square South New York, NY 10012

함께하는 이들: 공동체가족과 김동균목사(Rev. Tong-Kyun Kim)
tongkyun@gmail.com / 917-622-2471
<http://www.judson.org/TheLeastofTheseChurch>

작은자공동체 예배순서

2017년 3월 5일(주일) 오후 3시

사회: 김동균 목사

묵상 ----- 다함께

한 마음 한 노래 (시) ----- 낭독: 김웅

"나에게 부치는 편지" (시, 이옥환)

한 마음 한 노래 (시) ----- 낭독: 장동인

"나에게 쓰는 위로 편지" (시, 정연복)

하늘 뜻, 사람 뜻 나누기 ----- 김동균 목사

나눔의 이야기: 누가복음서 5,12-16

화두: "내 안의 아픔, 좌절, 부끄러움을 향해 나의 진실한 그리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보았는가?"

한 마음 한 노래 (시) ----- 낭독: 해나

"3 월에게" (시, 정연복)

한 마음 한 노래 (노래) ----- 다함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노래, 복음성가)

사람 뜻 올리기(기도) ----- 다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 다함께

한 마음 한 노래 (시)

나에게 부치는 편지

나를 내세우면서도
진실로 사랑한 적이 없었노라

나를
차갑게 만들고
나를
어둡게 만들고
거리로 내몰면서도
단 한번 위로한 적이 없었노라

날마다 전쟁터로 보내고
날마다 시비를 걸면서도
찾아준 적이 없었노라

즐거우나
괴로우나
거친 숨소리만 내었을 뿐

단 한번도
족쇄를 풀어 준 적이 없었노라
단 한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노라

(시, 이육환 - 낭독: 김웅)

한 마음 한 노래 (시)

나에게 쓰는 위로 편지

하루하루 씬 없이 이어지는
나그네 인생길

지금까지 한 발 한 발
참 열심히도 걸어왔네요.

힘든 고비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잘 견디어주었지요

이제 저만치 긴긴
길의 끝이 보이기 시작해요.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
새롭게 힘과 용기를 내요

사랑하는 가족과 벗들도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으니

(시, 정연복 - 낭독: 장동인)

하늘 뜻 사람 뜻 나누기

나눔의 이야기: 누가복음서 5,12-16

화두: "내 안의 아픔, 좌절, 부끄러움을 향해 나의 진실한 그리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보았는가?"

일자: 2017 년 3 월 5 일

5:12 예수께서 어느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이 나병으로 문드러진 사람 하나가 나타났다. 그는 예수를 보자 땅에 엎드려 간청하며 "주님, 주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쳐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고 말씀 드렸다. 5:13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자 곧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5:14 예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네 몸이 깨끗해진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5:15 그러나 예수의 소문은 더욱 더 널리 퍼져서 예수의 말씀을 듣거나 병을 고치려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떼지어 왔다. 5:16 그러나 예수께서는 때때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를 드리셨다.

5:12 While Jesus was in one of the towns, a man came along **who was covered with leprosy**. When he saw Jesus, he fell with his face to the ground and begged him, "**Lord,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5:13 Jesus rea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the man. "I am willing,**" he said. "Be clean!" And immediately the leprosy left him. 5:14 Then Jesus ordered him, "Don't tell anyone, but go, show yourself to the priest and offer the sacrifices that Moses commanded for your cleansing, as a testimony to them." 5:15 Yet the news about him spread all the more, so that crowds of people came to hear him and to be healed of their sicknesses. 5:16 But Jesus often withdrew to lonely places and prayed.

한 마음 한 노래 (시)

3 월에게

쓸쓸히 낙엽 지고
찬바람 뽕뽕 불던 그때부터

어느새 여러 달을
손꼽아 너를 기다렸다.

일년 사계절 중에도
추운 겨울은 유난히 길어

너와의 만남이
아득히 멀리 느껴지기도 했지.

하지만 꽃샘추위 속
따스한 기운을 풍기며

올해도 기어코 너는
이 땅을 다시 찾아왔구나.

긴긴 겨울을 넘어오느라
많이 힘들었는지

아직 너의 입술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다.

네가 있어 이제 거반은 봄
꽃은 좀 천천히 피어도 괜찮으니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숨 고르고 한잠 폭 자렴.

해마다 이맘때면
가슴 설레는 희망 가득 안고

사뿐사뿐 우리 곁으로 오는
반갑고도 고마운 너

(시, 정연복 - 낭독: 해나)

한 마음 한 노래 (노래)

Someone is praying for you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When it seems that you prayed till your strength is all gone and your
 Have the clouds 'round you gathered in the midst of a storm? Is your
 마는 음신 이 지 외 로 서 이 돌 례 하 나 소 았 음 고 때 이 한 음 신

tears fall like rain - drops all the da - y long Je - sus
 ship tossed and bat - tered? Are you weary and worn? Don't lose
 이 내 무 투 투 처 에 게 - 는 이 례 하 나 내 나 주 주 가 락

cares and He knows just how much you can bear He'll speak your
 hope some - one's pray - ing for this very day and peace be
 이 례 하 나 아 리 시 연 네 만 한 신 의 아 마 시 음 고 대 평

name still to is some - one in the prayer
 이 내 무 지 오 지 도 지 하 한 시 한 내 음 - -

Some - one is pra - y - ing for you
 이 내 무 가 히 님 - - 위 해 하 위 여 - -

Some - one is pra - y - ing for you And when it
 이 내 무 가 가 기 - y - 도 하 네 - 내 가 락

seems you're all a - lone and your heart would break in two re - mem - ber
 이 례 하 나 외 례 하 나 서 - - 마 음 이 무 님 너 질 두 때 누 군 가

some - one is pray - ing for you
 이 내 무 위 - - 해 기 - 도 하 하 네 - -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하느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늘의 별만을 바라보다
발 아래 놓인 아름다운 꽃들을 놓치지 않는 사람,

마음의 뜰에 인내를 심어
그 뿌리는 쓰지만 값진 열매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명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 유연한 감성으로
인생의 난관도 잘 이겨 낼 수 있는 사람,

나로 인해 그 누군가를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 사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

내려놓고 더 내려놓으며
하느님과 의논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삶에 지친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바른 길 가도록 붙들어 세워 주는
따뜻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사람이든 사물이든 모든 것엔
그만의 아름다움이 있음을 존중하며
남은 생애의 가장 젊고 아름다운 날이 오늘임을 잊지 않고
희망과 열정으로 하루를 맞이하고 보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